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이숙경	소 속	기획재정부
훈 련 국	인도네시아	훈련기간	2015.2.2 - 2017.8.1
훈련기관	가자마다대학교 (Universitas Gadjah Mada)	보고서매수	100 매
훈련과제	한-인니 경제협력 효과성 제고		
보고서제목	한-인니 경제협력 효과성 제고		
내용요약	<p>1. 서론</p> <p>경제협력은 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때로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줄임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국제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p> <p>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G20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최대 경제국으로 2억 5천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끌어가는 내수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면서 최근에는 연평균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러한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각종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발전과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등과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본 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p>		

2. 인도네시아 경제와 경제정책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광범위성과 함께 종족, 언어, 종교 등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 때론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도 일어나지만, 그러한 다양성 안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총 인구 2억 4천명으로 세계 4위이며, 약 300여 종족이 있으며, 무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카톨릭, 개신교, 유교 이렇게 6개의 종교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 종교들 중에서 이슬람교도가 87% 가량으로 2억명 정도를 차지하여 이슬람인구로는 전세계 1위인 나라이고, 그만큼 이슬람교가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정치·역사적으로는 오랜 식민지 경험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는 오랜 군부 독재의 집권,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다.

2017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를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의 관점에서 세계 10대 국가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인도네시아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라이벌들을 제치고 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은 20년간의 개발계획인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5년간의 개발계획인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1년간의 개발계획인 국가실행계획(RKP)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 중 2014년 발표한 2015년 ~ 2019년까지 5년간의 개발계획인 국가중기개발계획은 식량 주권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확보, 해양강국을 목표로 한 해양산업 활성화, 관광 및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총 29개의 프로그램과 총 116개의 세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프라 관련한 사항은 16개의 프로그램으로 RPJMN 2015~2019의 전체예산 중 88%에 해당한다. 이것은 국토의 고른 경제개발을 위하여 주택, 물과 전기 공급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장,중,단기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경제정책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라는 이름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4차례 발표하였다. 이 경제정책 패키지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p>를 만들기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와 비용인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전력 발전소 건설 가속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p> <p>특히,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은 인프라개발을 중점으로 하며 자원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제도(PPP)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p> <p>3.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현황</p> <p>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0년대 이후 교역, 투자, 정부간 협력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왔다. 투자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수로는 세계 6위, 투자금액으로는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주요 투자국이기도 하다.</p> <p>이러한 양국의 양자 협력 관계는 1971년 인도네시아와 경제 및 기술 협력과 통상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임업, 항공, 투자보장, EDCF, 자원협력과 도로에 대한 협정 등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왔고,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2012년부터 체결 노력을 하고 있는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p> <p>이렇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류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드라마와 K-POP으로 대변되는 한류 열풍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는 매우 높는데 반해, 한국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양국간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p> <p>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정책</p> <p>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p>
--	--

	<p>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형태로 구분된다.</p> <p>한국은 독립 이후 국제사회의 공적원개발원조를 받으며 경제개발에 도움을 받아 오다가, 1990년대에는 원조 수원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지위가 바뀌게 되었고,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다. 이후, 한국은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DAC)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외원조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p> <p>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중 양자간 협력은 유상원조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각종 사업이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ODA 집행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매해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KDI(한국개발원)에서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KSP)을 추진하고 있다.</p> <p>이러한 개발협력정책 중 민관협력사업은 KOICA의 무상원조 분야에서 NGO의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상원조 분야의 민관협력 사업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ODA 분야의 PPP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중이다.</p> <p>한국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위하여 24개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였는데, 인도네시아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대상 개발협력정책을 살펴보면, 유상지원인 EDCF 지원현황의 경우 EDCF가 설립된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한 총금액 15조 1,956억원 중 전체의 4.3%인 6,491억원(총 20개 사업)을 지원하여 지원대상국 중 7위에 해당한다. 무상지원의 경우 지난 5년간(2010-2014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전체 개발협력 지원금액 1억 7,318만 달러 중 무상지원이 1억 794만달러로 62.3%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무상지원 중 하나인 KSP 사업의 경우, 경제개발과 금융, 에너지, 보건 분야 등에 걸쳐 2014년까지 46개 과제를 추진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수요에 맞</p>
--	--

는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상수도시스템 및 홍수에·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컨설팅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강의 기적'을 모델로 '찌따롱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다. 수질개선은 물론 댐 건설까지 찌따롱강 개발의 전 과정을 KSP를 통해 마련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드머니로 EDCF에서 1억달러를 지원받았다. 카리안 댐이 들어서면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효과성 제고

첫째,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경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개발 분야에 대한 PPP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의 인프라사업 중 PPP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결정하기는 사업추진에 따르는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쉽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민간사업자가 해외 PPP 사업에 참여할 경우 떠안게 되는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KOICA의 무상원조와 EDCF의 유상원조를 결합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PPP 사업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주는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KSP(경제발전경험공유 프로그램)와 KOICA의 개발컨설팅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전체 ODA 지원액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액은 EDCF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설립 후 2016년까지의 총 지원금액의 4.3%인 6,491억원을 지원하여 7위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비추어 생각하면 낮은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문화,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이슬람 문화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많고, 그런만큼 인도네

	<p>시아인에게 종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든 민간사업자이든 상관없이 경제협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문화,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한 교육수료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KOICA의 무상원조사업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상품시장에 진출시 할랄인증 획득은 현재 권고에서 2019년부터 법적 의무가 되므로, 한국내 유일한 인증기관인 인니할랄코리아와 정책적 협력을 통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할랄인증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p>
--	---